

제1 교시

국어 영역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마음 속
누구도 모르는 산등성에
한 그루 철목을 가꾸어 왔습니다

나뭇잎 지고
시냇물마저 여위는 가을을
최후의 계절이라 믿었던 어느 그 날,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던 사람
떠나고 없었으며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줌이 더욱 백 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것을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결문 같은 고요 속에
나뭇가지 사철 굵은 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설악(雪岳)에 뻗는
백엽보다도 희고 손 시린 이 나무는
역력히 이 나무를 닮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

당신이며
볼찌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 겨울밤

- 김남조, 「설목(柞木)」 -

(나)

마당에서 분과 연월에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갔다.
그렇게 덩실이 높던 오동잎도 다 떨어지고
저무는 가을 하늘에 인가(人家)의 정서를 품던
굴뚝 보얀 연기도
찬바람에 그만 무색해졌다.

그런 ㉠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집을 팔게 되어
다가오는 겨울이 더 외롭고 무서웠다.
이삿길을 따라 비탈길을 종종히 걸어
㉡ 두만강 건너는 이사편처럼 희색 하늘 속으로
들어간 식솔들이 저녁상에 둘러 앉으니
어머님 한 분만 오시잖아서 ㉢ 별안간 알나가
무너진 듯 허전해서 눈 둘 곳이 없었다.
낮선 사람들이 죽대에 김장 포장을 치고
초롱을 달고 가던 이튿날 목 없는 아침이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 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지

무너져 ㉣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니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익기도 어려워
겨울 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고난의 잔에 열음을 녹이며 찾는 것은
그 슬픔이 아니요 겨울 하늘에 푸른 빛을 띤 봄이다.
그 봄을 바라고 겨울 안에서 뱅뱅 돌며
자리를 끌고 한 치 한 치 태양의 돌레를
지구와 같이 굴러가면서
눈과 열음에 덮인 대지(大地)의 하루를 넘어서는 해 질 무렵
천장에서 왕기미가 내리고
구석에서 귀뚜라기가 어정어정 기어 나온다.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활짝 달려들면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번 못하고
㉤ 친구들의 손 한번 바로 잡지도 못하고 가리다.

- 김광섭, 「겨울날」 -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동백의 방식을 통해, (나)는 대화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작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 (가), (나)를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가)의 '시냇물마저 여위는' 것은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조응한다고 볼 수 있겠다.
- ② 겨울이 세상이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가)의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것은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③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④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에 주목한다면, (나)의 '열음을 녹이며' '봄을 찾는 것은' 시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⑤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눈과 열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를 넘어서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건너 내는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에서는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겨 둔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설복』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즐거웠던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을 형성화하고 있다.

- ① '나의 마음 속에' 한 그루 실목을 가꾸어 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접하고 키워 가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D
- ②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 달고' 위로 실악에 뻗는 것은, 어떤 시련에서도 지키고 싶은 사랑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형성화한 것이겠군. D
- ④ '백엽보다도 희고 손 시린' 나무의 모습을 '내 사랑의 표지'라고 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화자의 순수한 사랑을 표상하는 것이겠군. O
- ⑤ '당신'을 부르며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D

4. (나)의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화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을 통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을 통해 어머니의 부채를 실감하게 된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을 통해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을 통해 화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민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유언이나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사 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표시 행위에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동작이나 침묵 등도 포함된다. 법률 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의사 표시를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률 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 행위의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법률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 그리고 법률 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입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의 규정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는 ㉠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를 ㉢ 밝히는 것으로,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다. 계약의 경우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표시 행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표의자의 진의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진의와 다른 의사 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유언자의 진의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이다. 이 해석은 표의자의 표시 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다.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시 수령자가 실제로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만을 가지고 법률 행위를 해석하지는 않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느냐를 중시하여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어떤 계약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표의자의 진의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에 해당한다. 그런데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표시 수령자의 과실로 표의자의 진의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규범적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의와 다를 경우에는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때 표의자는 법률 행위의 중요한 의사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 법률 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되는 것으로 ㉣ 혼혈이 있는 법률 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보충적 해석은 모든 법률 행위에서 할 수 있으나 주로 계약에서 행해진다. 어떤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을 계약 당시 알았다면 양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보충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법률 행위의 흠결이 되는 것이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시주받아 『육백만야경(六百般若經)』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 염라대왕에게 갔다.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늘그막에 『대품만야경(大品般若經)』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네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의 논 한 이랑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 와서 오랫동안 가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눈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이 있을 때 참기름을 짐상 아래에 숨겨 두고, 굽게 잔 배를 이불 사이에 감추어 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佛燈)을 켜 주시고, 그 배를 팔아서 불경을 배게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말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 이때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 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 주었다.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또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다. ㉡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僧司書庫)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 일연, 「선율 환생」 -

(나)

사자 홍사(紅絲)를 내어 뽕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성화같이 제죽하며 칼치로 치니, 유희이 남자하며 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실종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빌되, ㉢ 왕명을 어이하리오.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며 낙루 탄식 앞.

“저 공산명월은 이제 가면 언제 볼고,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

오는 천둥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내 소식이 만연하다.”

㉣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狂波)로다.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뜬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지 못하더라. 그러구려 염라국을 돌아오니 칠성(鐵城)을 들렀는데, 문 지키는 나졸들이 장창 대검을 들고 후좌후립(後座或立)하였더라.

그러구려 들어가니, 한 사자 이십 천 여이를 이끌고 오며 쇠몽치로 치니 유희이 남자하거늘, 홍이 대경하여 사자에게 문 앞.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게.”

그 사자 답 왈.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安南國)에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저 하게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고로 잡아 오나이다.”

(중략)

그러구려 들어가니, 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되 극히 엄숙하더라.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천관을 쓰고 몸에 곤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흥단령 임은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황하여 오락가락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 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졸들이 왕방울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설홍을 잡아가거늘, 홍이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었드러더니, 선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설홍아, 들라. 너는 삼태 선파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 지어 확한 죄로 지하여 내리야 사십 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금릉 땅 앵무동 설희문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조실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조선너는 풍도(鄜都)에 보내 십 년을 머무른 후에 명국 소주 땅의 구화동 왕녕의 여식이 되게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 기 하늘이 정한 일이 어니와 이는 무엇이 뇨. 천명을 거슬러 이 봉황으로 하여 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天桃)를 일으켜 앉아 먹으니, 상제 알오시고 봉황은 천 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말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 라. 내 문 죄 코져 너 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뢰라. 일정 기망하면 네 살을 쥘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 버리고 세상의 그림자 도 없게 하리라. 종실 치고 하라.”

호령을 높이 하니, 제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화에 황건으로 쓴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 설홍을 잡아 내려 주살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설홍이 정신을 다시 차려 아뢰되,

“소자는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나,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러 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앉아 먹사오리까. 어인 소건에 생각하오니 바람에 밀려져 물에 빠지우고, 잡초에 밀려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요.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 번 죽사 와도 이밖에는 다시 아뢰 말씀 없사오니, 복걸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왕이 설홍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나 일후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하며 문밖에 내치니라.

설홍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 작자 미상, 「설홍전」 -

1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그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하여 소재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인물들의 태극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12 (가)의 '선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덤 속에서 살아난 후에 혼자의 힘으로 무덤 밖에 나올 수 있었군.
- ②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군.
- ③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던 것을 사람들에게 절대 말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군.
- ④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염라대왕에게 표출했군.
- ⑤ 불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군.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여인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설홍이 저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설홍이 저승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길의 연속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설홍이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14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염라대왕은 친병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설홍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② 염라대왕은 설홍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허물없이 살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설홍은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을 떠나면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다.
- ④ 설홍은 염라대왕에게 봉황이 자신에게 임자 없이 버려졌던 열매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 ⑤ 설홍과 글로 화답한 선녀는 인간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운명 을 지니고 왕년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삼국유사』의 「선율 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구별하고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투쟁(鬪爭)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소(話素)는 후대의 저승 체험담에서도 발견된다. 후대의 고소설인 「설홍전」에서는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설홍전」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 환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① (가)에서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을 통해 불경 완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저승사자가 이십 전 여야를 저승으로 잡아 온 것은,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나)에서는 설홍이 이십 전 여야에 대해 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저승 체험에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가)에서는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설홍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가)에서는 눈 한 이랑을 훔친 죄에 연루된 까닭으로, (나)에서는 진도를 앓아 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잡혀 온 인물이 있는 것은 도적질을 악업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시가에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하는 예정 시조들이 있다. 이러한 시조들에서 달은 시적 정황이나, 함께 언급되는 다른 소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몇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먼저 예정 시조에서 달은 ㉠ 입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성하는 데 활용된다.

(가)

들뜨자 벉 저나니 인제 가면 언제 오리
 변경창과에 가는 듯 도라옵시
 밤중만 지국충* 소리에 이긋는 듯 호려라

*지국충: 배에서 노를 짓고 닻을 감는 소리.

(가)의 달은 화자와 입이 달밤에 이별하는 상황을 형성하는 데 활용되는 소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예정 시조에서 달은 ㉡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의 되기도 한다.

(나)

객창(客窓) 뜻는 달의 두견이란 우지진다
 엇그제 님 여하고 호몰며 객리*로다
 밤중만 난간애 의지호야 지는 달밤

*객리: 객지에 있는 동안.

(다)

주렴에 빗썸 달과 멀리 오는 옥적(玉笛) 소리
 천수(千愁) 만한(萬恨)을 내 어이 도도나
 천리(千里)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드러 호로라

서정시에서는 특정한 소재가 화자의 감정을 촉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와 (다)의 달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나)와 (다)의 달은 이미 발생한 이별의 상황과 결합되어 화자의 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예정 시조에서 달은 ㉢ 입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와 입을 시약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라)

내 마음 버혀 내어 떠들듯 땡글고저
 구마리(九萬里) 장천(長天)의 먼디시 걸러 이서
 고은 님 계신 고디 가 비껴어나 보리라

(마)

달아 붉은 달아 님의 장전(窓前) 빗친 달아
 꽃 갖흔 우리 님이 안겼더니 누웠디나
 저 달아 네 본디로 일나라 소식이나

달은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화자와 입 사이를 중시적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달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두 사람을 동시에 비취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라)와 (마)의 화자는 입과 떨어져 있지만 입 역시 어느 곳에서든지 달 아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달을

통해 두 사람은 이어질 수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예정 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은 우리 문학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된 시기는 수천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정 시조와 달을 바라보며 임을 그리워하는 시국의 시가를 비교해서 읽는 활동은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예정 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은 중국의 당시(唐詩)나 일본의 와카(和歌) 등에서도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대나 나라가 달라도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2 (가)~(마)의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달은 배의 출항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와 입이 헤어지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달은 화자가 타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두견이'라는 소재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화자의 정한을 돋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다)의 달은 화자의 이별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옥적'이라는 소재와 어울려 입을 위한 화자의 장정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라)의 달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입과 화자를 이어 주는 매개물로 볼 수 있겠군.
- ⑤ (마)의 달은 화자가 궁금한 점을 묻는 상대로 설정된 것으로, 입의 사정을 화자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전달자로 볼 수 있겠군.

'안갠'이라니 정했다!

23 <보기>의 ㉠~㉣ 중, (가)~(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기>

시조는 형식적 제한이 견고해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주관적인 내용에 대해 공간을 얻어야 하므로, 관습적인 발상과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정 시조에 나타나는 이러한 발상과 표현에는 ㉠ 이별과 관련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정감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 ㉡ 이별 후의 심적 고통을 불면의 상황으로 나타내는 것, ㉢ 추(秋)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 ㉣ 의인화된 사물에 이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 ㉤ 이름대움을 상징하는 사물에 입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 등이 있다.

- ① a ㉠ ㉡ ㉢ c ㉣ ㉤
- ② b ㉠ ㉡ ㉢ c ㉣ ㉤
- ③ c ㉠ ㉡ ㉢ c ㉣ ㉤
- ④ d ㉠ ㉡ ㉢ c ㉣ ㉤
- ⑤ e ㉠ ㉡ ㉢ c ㉣ ㉤

24.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나)와 (다)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 (다)와 (나)는 특정한 소재를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 (나)는 일경에서 근경으로,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 ㉣ (나)와 (다)는 모두 대상과의 재회를 확인하며 고통을 견디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 (나)와 (다)는 모두 종장의 마지막 구절을 불완전하게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25.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학생이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다음은 당(唐)나라 장약하의 '춘강화월야(春江花月夜)'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애정 시조와 비교해 읽으면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달의 세 가지 기능 ㉠~㉢이, 다음의 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가련하다 누대 위에서 배회하는 달은
 헤어진 이의 경태를 비추고 있으니
 주름 사이에는 잔여도 사라지지 않고
 다듬잇돌 위에는 털어도 다시 오네
 이제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 서로 들을 길은 없으니
 달빛 좇아 흘러가 입을 비취 보리라

*경태: 거울을 닦아 세운 화장대.

달의 기능	탐구한 내용
㉠	이별한 이후의 상실감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이별하는 상황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달의 기능은 찾을 수가 없겠군. ○
㉡	화자가 '가련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으므로 달은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	'털어도 다시 오네'라며 달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아 달은 화자의 수심을 유발했다고 할 수 있겠군. ○
㉣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는 이별한 두 사람이 같은 달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군. ○
㉤	'달빛 좇아'와 '입을 비취 보리라'를 통해 이별한 두 사람은 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군. ○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동안은 누가 나를 쳐다보고 누군거리기만 해도 얼마 이야 기라고 지레짐작했으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 버리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 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내 몸 밖을 나간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물론 그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사람이다.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작위'라는 말을 알게 된 뒤부터 그런 의혹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 위선이 아니라 ㉡ 작위였으며 작위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에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빛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모는 군인인 이형렬과 편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

그러나 일단 그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죽죽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나, 이형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 아무개 씨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의 전공은 토목과. 우리는 시집을 갖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래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A] 계획이다. 다들 줄 아는 악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숲길을 쟁 달러 보는 게 오렌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 보진 못했다. 그동안은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 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도 연속극 시간에는 다른 일을 모두 폐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극을 듣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 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개는 곤하게 잠이 들어 있기 일쑤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할머니! 들어 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말이 얼마하고 나왔어요. 지금요!”라고 연속극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 버렸다는 데 무안해진 할머니는 전혀 졸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게 내며 “나도 안다, 알어” 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꾸꾸, 하는 일정한 리듬의 숨소리를 내며 도로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선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 오면 자문관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다.

이모가 이형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중 이런 식으로 이형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루었다.

나, 진영옥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 아무개 씨의 1남 1녀 중 맏딸이다. 오빠는 현재 병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가갓집 세놓은 일을 표현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에 종사한다.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 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세,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붉혀 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 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 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 주는 진실한 남성.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편지는 점점 센터 맨틸하게 변해 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뜻한 구절이 많아진다 실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은 이형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 주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를 전해 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 은희경, 「새의 선물」 -

26.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간추린 편지의 내용에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논평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편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서술자가 하나씩 밝혀 가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A]는 서술자가 과거에 본 편지 내용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B]는 서술자가 현재에 편지를 읽어 가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27.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남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들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 ② ‘나’는 이형렬의 편지가 짧으면서도 어려운 단어가 없어서 읽기에 편하다고 느꼈다.
- ③ 할머니의 초저녁잠은 이모가 할머니의 눈을 피해 마음껏 편지를 쓰는 데 도움이 되었다.
- ④ 이모는 이형렬의 사진을 보고 그의 외모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는 것을 편지에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 ⑤ 이모는 편지에 애뜻한 표현이 많아진다 실을 무렵부터 편지의 표현에 대해 ‘나’에게 자문을 거의 구하지 않았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새의 선물」의 주인공은 열두 살밖에 안 된 소녀이지만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감춘 채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 세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과 관련이 있다.

- ①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의 내면을 어른들에게 보여 주지 않기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 온 결과로 볼 수 있겠다.
- ②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다.
- ③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 ‘빛진 마음’이 없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이 한 행위를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겠다.
- ④ 이모의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했다고 평가하며 ‘이형렬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리라고 짐작한 것은, ‘나’가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관찰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다.
- ⑤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라고 한 것은, ‘나’가 어른과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다.

29. ㉠과 ㉢를 통해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보여지는 나'가 받았던 상치가 ㉢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② '나'는 ㉢로 인해 발생한 의혹을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나'를 분리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한다.
- ③ '나'는 ㉢로 인해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의 내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④ '나'는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든 것을 ㉢가 아닌 ㉢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 ⑤ '나'는 ㉢보다 복잡한 감정인 ㉢가 '나 아닌 다른 나'에 대한 주변의 비난을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인 휴대 전화는 800MHz 대역이나 2100MHz 대역 등과 같이 일정한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어 있다. 이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할당받아 휴대 전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할당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혼선 없이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 접속 기술이 필요하다. 다중 접속 기술이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로,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CDMA 방식은 ㉠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여러 송신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정보를 송신하여도 수신자는 자신에게 보내는 정보만을 구별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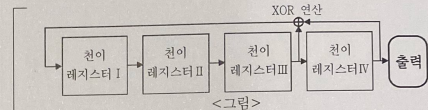
가령,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가 1001이고 확산 코드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송신하려는 정보와 확산 코드를 결합하기 위한 'XOR 연산(⊕)'을 수행한다. XOR 연산은 비교 대상이 같으면 0, 다르면 1로 나타내는 연산이다. 1001의 맨앞의 1을 확산 코드 100의 각 자릿수와 XOR 연산을 하면 011로 확산되고, 그 다음의 0을 확산 코드 100의 각 자릿수와 XOR 연산을 하면 100으로 확산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01은 12 자리의 011 100 100 011로 확산되고, 확산된 신호가 송신된다.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있다. 12 자리

[A] 0 1 1 1 0 0 1 0 0 1 1 1 은 확산 코드 1 0 0과 같은 3자리 $\begin{matrix} Y_1 & Y_2 & Y_3 & Y_4 & Y_5 & Y_6 & Y_7 & Y_8 & Y_9 & Y_{10} & Y_{11} & Y_{12} \\ C_1 & C_2 & C_3 \end{matrix}$ 의 블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첫 블록에서 $y_1\oplus c_1, y_2\oplus c_2, y_3\oplus c_3$, 다음 블록에서 $y_4\oplus c_1, y_5\oplus c_2, y_6\oplus c_3$ 와 같은 수행을 반복한다. 그러면 각 블록의 연산 결과는 111 또는 000이어서 1 또는 0으로 수렴되어 원래의 정보 1001을 복원할 수 있다.

한편 2400MHz 대역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어 특별히 할당받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400MHz 대역으로 통신하는 블루투스 기기들은 자유롭게 통신하면서도 혼선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파수 도약 확산(FHSS) 방식을 사용하는데,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서는

우선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들이 '페어링'되어야 한다. 페어링은 블루투스 기기들 간의 무선 통신을 위해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을 설정하는 것이다.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자 하는 기기들 중 어느 한쪽에서 검색 신호를 송신하면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된다.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상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고 검색 신호에 응답을 한다. 응답한 기기들 중 통신을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페어링이 완료되고 이때부터 기기들 간에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기들 간에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변에서 보내오는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검색 신호에 응답한다.

FHSS 방식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2402MHz부터 2480MHz까지의 주파수를 1MHz 단위로 나누어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고, 79개의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이때 채널을 선택하는 패턴을 ㉡ 확산 패턴이라고 한다. ㉢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1초당 1600번 이동해 가며 통신을 한다.



확산 패턴은 <그림>과 같이 찬이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해 만들 수 있다. 각 시행에서 각각의 찬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오른쪽의 찬이 레지스터로 이동한다. 이때 찬이 레지스터 IV가 가지고 있던 값이 출력되고, 비워진 찬이 레지스터 I은 이전 시행의 찬이 레지스터 III과 찬이 레지스터 IV의 값을 XOR 연산을 하여 채운다. 각 찬이 레지스터의 초깃값이 1, 1, 1, 1 일 때 4 시행에 따라 출력된 값은 1, 1, 1, 1, 0, 0, 0, 1, 0, 0, 1, 0, 1, 0, 1, 0,과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선택하려는 채널의 개수를 고려하여, 출력된 값들을 변환하면 다양한 확산 패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들이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하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

* 찬이 레지스터(shift register): 정보를 저장하고 이동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

3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CDMA 방식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 ② 이동통신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공급한다.
- ③ 블루투스 기기들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2400MHz 대역으로 통신한다.
- ④ CDMA 방식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서로 다른 확산 코드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 ⑤ 블루투스 기기들의 페어링을 위한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된다.

